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282호 [미비필]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12월 1일 발행인 : 최만기 인간개발연구원(KHI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경남우체국 B/D 5층 T.2203-3800(국) F.2203-1974 www.khihdi.or.kr 디자인 : 팀장 이계경 pas@khihdi.or.kr 인쇄 : (주)동명인쇄

Mr. Toilet

인류의 삶의 질 높이는 화장실 문화

머릿글 (사)국학원 교육원 원장 장영주

12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금곡서당 대표 하병국

커버스토리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심재덕

개성공단방문기 동국산업(주) 부회장 정문호

지자체특강 가톨릭의대 교수 맹광호

발행인 편지

2007 연구원 이모저모

Health Info 정식품 명예회장 정재원

회원 & 연구원소식

송년의 밤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문웅린칼럼

표지인물 심재덕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12

2007 December

21세기 초일류기업은 직원과 고객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는 기업이다!

경영학도에서 CEO까지, 23년 동안 국내외 경영사례 분석을 통해 집대성한 행복경영모델!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전략의 명장으로 살아온 조영탁 대표. 구매, 회계, 기획, 영업, 경영혁신부서를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실무경험과 현장노하우! 리더십교육전문기업의 CEO로서 대한민국 대표 행복전도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리더를 감동시키고, 직장인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피우게 한 '행복경영론'의 모든 것! MBA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살아있는 경영전략과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장수하는 기업들의 숨겨진 비결을 공개한다!

조영탁·정향숙 지음
316쪽 | 값 12,000원



행복경영 신간

행복경영은 단순한 이상이나 꿈이 아닌
‘현실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이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우리가 파는 것은 바로 행복이다”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최대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윤보다는 고객 행복을 추구했을 때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센티브인 것이다.

“나에게는 무엇보다 직원행복이 최우선이고, 고객만족은 그 다음이다”

‘천년의 커피 역사를 뒤집는 성공신화’를 써내려간 스타벅스의 하워드 숄츠는 직원최우선 경영을 펼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경영원칙 덕분에 경쟁사의 이직률이 연간 150~400%인 데 비해, 스타벅스는 60~65%밖에 안 된다.

『행복경영』은 단기간 성과를 올리는 ‘족집게 경영기법’이 아니라 세기를 뛰어넘어 고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롱런 경영전략’을 담고 있다. _ 김재우 아주그룹 간사재무부 부회장

조영탁 대표의 통찰력과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책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환한 등불이 될 것이다. _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HAPPINESS MANAGEMENT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

장영주 (사)국학원 교육원 원장

새로운 해를 잉태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 2007년, 단기 4340년의 세모에 전개되는 크고 작은 상황이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재편되는 국제 역학과 안으로는 대선의 변수에 따라 조석으로 요동치는 거국적인 민심의 변화로 내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려의 피침, 조선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대한제국의 망국과 일본의 침략, 6·25동란, 그리고 다시 솟아나는 태양의 빛과 그림자들! 어느 고비마다 극명하게 갈라져 닥쳐온 운명! 한없는 회한으로 흘린 눈물과 피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의 세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또한 바로 그 때라는 것을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과학자들의 입을 통하지 않아도 촌각을 다투는 지구 환경의 위기를 이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 민족과 인류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한 해를 통과해가고 있고 올해의 과보를 등에 업고 다시 내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혼율, 자살율, 청소년 흡연율 등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만 삭스에서는 북한문제와 양극화의 걸림돌이 제거된다면, 2050년을 기해 대한민국은 세계 제2위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양극화를 조화로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사상과 종교를 뛰어넘는 심성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몽골에서는 새끼를 밴 어미낙타가 너무 힘들게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을 힘들게 한 새끼 낙타를 돌보지 않는다 합니다. 젖도 주지 않을 뿐더러 새끼를 발로 차거나 물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성이란 사랑이 본성인데 아픈 기억에 의하여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어미낙타를 위해 약기를 연주해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상처받은 어미낙타를 위해 울동과 가락으로 생명과 생명을 하나로 이어 줍니다. 억지로 젖을 물려도 한 사코 회피하던 어미가 연주를 듣는 순간 놀랍게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서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물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바로 채찍과 호령이 아니라 힘을 북돋우는 배려요 사랑입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는 수맥에 닿아 있고 태양을 향하여 마음껏 팔을 벌릴 수 있다면, 어느 나무든지 그 사랑으로 어떤 상처든 회복하고 거뜼하게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샘플과 햇별은 먼저 서로가 서로의 상처

를 치유하고 보듬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겐 언제나 내 자신이 하늘이요 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르침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것을 몸으로, 노래로, 가락으로, 뇌파의 공명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 되어 다시 태어나는 밝고 강한 문화로 어느 선진국에서도 수입할 수 없는,

본래부터 있어 온 홍익정신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살을 돋우어 자연의 힘을 회복하고 인류를 평화로 인도할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집에서는 효자가 되고, 나라에는 충신이 되어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희망 진원지입니다. 인간사랑, 나라사랑,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한민족에게 세계를 경영할 능력이 깃드는 것은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일을 잊고 잠에서 깨어나 원대한 꿈을 위해 다양한 하나가 됩시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나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KM**



장영주 원장

1947년 생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민족정신광복회 부회장, 홍익가정운동연합 회장, 홍익운동연합 대표, 우리 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 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국학원 부원장 겸 교육원장, 부설 효충도 교육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홍익예술인협회 고문, 총무공연구소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중국 정부가 선정한 세계100대 화가에 뽑히기도 했다.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2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혁신적인 신시장 개척으로 더 큰 미래를 창조한다

제1528회 12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조직에 우수한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조직문화와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통해 창의력이 발휘되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CM(건설사업관리)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2006년 미국의 ENR지 선정 '미국을 제외한 세계18위 CM기업'으로 도약한 곳이 있다. 김종훈 사장이 이끄는 한미파슨스로 10년에 불과한 국내 CM업계 역사를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김 사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시장의 수주환경이 가격과 기술력으로 싸우는 무한경쟁체제로 빠르게 재편되던 시기에 국내에서 CM이라는 신시장을 개척했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서울월드컵경기장, 도곡동 타워펠리스, 삼성동 I-PARK 등이 한미파슨스의 작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중국과 두바이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해외사업도 적극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 CM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 기술력, 차별화된 시스템이라 믿고 임직원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한미파슨스는 나아가 글로벌 5대 CM기업으로의 도약과 함께 새로운 건설문화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불모지 시장에서 3000억원대 규모와 점유율 30%로 국내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한미파슨스의 김종훈 사장을 초빙하여 혁신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 비결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훈 한미파슨스 사장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1973년 (주)한샘건축연구소 | 1977년 한라건설(주) | 1984년 삼성물산(주) |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 한국CM협회 이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 | 건설교통평가원 기술평가위원 | 서울시 창의서울포럼 시정관련 부대표 | 건교부 건설투명성포럼 공동위원장 |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상훈〉 건설경영대상, 대한민국 훌륭한일터상,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BSC대상 민간부문 대상,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상 상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경북대 불어교육학과 졸업 | 美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육학 석사 |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로 |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 | 주한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 (사)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 미래다문화재단 공동대표 |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세계미래회(World Future Society) 한국대표 | 연세대 생활과 학대학원 겸임교수

<상훈> 2003년을 빛낸 한국인 100인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및 감사패, 한국여의사회 '여의대상 길 봉사상' 외

<저서> 미래예측 리포트, 유엔미래보고서 2004 2005 2007(공저), NEXT JOB 미래직업 대예측, 2020트렌스휴먼과 미래경제(공저),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공저) 외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제12회 행정고시, 제18회 사법고시 합격 | 전주지검, 서울지검 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 한국법심리학회 초대회장 | 국제마약학회 초대회장 | 청소년잡지 '큰바위 열굴' 발행인 | 푸르메재단 대표 |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

<상훈> 홍조근정훈장, 인제인성대상, 대통령표창, 국민훈장모란장 외

<저서> 건전가정 30훈, 육하다 깨달은 성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이야기, 나쁜 아이는 없다 외

변화로써 사고의 진화를 하라-미래사회의 10대 트렌드

제1529회 12월 1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서진규 하버드대 박사의 신간 <서진규의 희망>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서진규 박사의 15분 미니스피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예측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이다. 미래는 다가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미래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이다. 급변하는 시대, 미래를 전망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결코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는 미래 전망이 내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자각하고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미래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제는 '미래'가 곧 '내 문제'인 것이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18년, 주한호주대사관에서 7년 등 25년간 양국 대사관에서 국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숙 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오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 전략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박 대표의 미래예측은 비관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미래 전망과 차이가 있다. 미래예측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뜨는 산업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준비하도록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 관리, 기업CEO, 각 분야 전문가 등 2만5000여명의 회원을 둔 세계미래회의의 유일한 한국대표이기도 한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를 초빙하여 급변하는 시대,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트렌드를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사고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좋은 정책의 무한경쟁과 대선 이후 미래비전

제1530회 12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날이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이다. 그동안의 정치·경제·사회·안보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한국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미래비전과 실천력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변화 직전의 현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208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7'에는 한국사회의 '오늘'과 지향하는 방향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교역규모 세계 12위, 조선·반도체분야 1위, 정보화지수 3위 등은 분명 자랑할만한 수치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 세계 3위, 도시생계비와 아파트 임대료 세계 3위, GDP 대비 사교육비 지출 세계 2위, 가계부채 700조원 육박 등은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5번째 치러지는 17대 대선은 그래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불확실성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정초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번의 선택이 5년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변호사로서 대선을 앞두고 매니페스토운동을 주도한 강지원 대표를 초빙하여 2007년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12월 27일 경영자연구회는 26일 '송년의 밤' 행사로 인해 휴회합니다.

제152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1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유교 경전과 리더십

하병국 금곡서당 대표



세상 어디든 사람이 나는 경로는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맹자(孟子)께서는 "하늘이 사람을 씬에 있어 근골도 편안케 하지 아니하고 뱃속도 채워주지 아니하며 일도 뜻대로 되게 하지 아니하다가 때에 이르면..."이라 말씀하셨다. 한 때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어떤 면에서 하늘이 교육시키는 트레이닝 코스일지도 모른다.

주자(朱子)는 38년간 <대학(大學)>을 집필하고 죽기 3일 전에 서문을 완성했다. 그 서문에 보면 예사롭지 않은 문장이 있다.

一有聰明睿智能盡其性者 出於其間이면 則天必明之하사 以爲億兆之君師하사 使之治而教之하야 以復其性케하시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총명하고 예지한 그 본성을 다할 자가 나오기만 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억조창생의 임금과 스승이 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여서 만백성의 본성을 회복케 하시니라.

이복기성(以復其性)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흔히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당연하고, 본성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유교의 근본목적은 성군(聖君)을 배출하는 것이다. 성군이라 함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대지도자를 일컫는다. 유교에서의 성인(聖人)은 성군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의 근본은 수신(修身)하는 것

중국에 갔을 때 공자가 왜 이 세상에 나왔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유가에서는 '공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공자는 <주역(周易)>을 가족 끈이 100번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내게 수명을 몇 년만 좀 더 빌려준다면 <주역>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텐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주역>은 잘 알다시피 하늘의 역사를 표현한 책이다. 하늘의 역사는 축약해서 표현하면 변(變)과 역(易)이다. 하늘은 한 시 한 때도 쉬이 없

이 우주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것의 연속인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변(變)과 역(易)의 역사함에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大學)>에는 '구일신(苟日新)이어든 일일신(日日新)하고 우일신(又日新)하니라' 하였다. 풀이하면 '만약 어느 날에 새로워졌으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할지니라'는 말이다. 사서(四書)에서는 백성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표현이 별로 없다. 단지 군자에 한해 하늘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나가는 역사에 비례해 더도 덜도 말고 그만큼 새롭게 하라고 지적한다.

유교에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몸을 만드는 수신(修身)을 든다. 수신을 함에는 우선 마음을 바로 해야 한다. <대학> 경문에 '자천자(自天子)로 이지어서인(以至於庶人)히 일시개이수신위본(壹是皆以修身爲本)이니라'고 하였다. 왕으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몸을 닦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수신이 이루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하늘의 역사에 정비례하는 몸이 완성된 때이다. 수신을 이룬 사람은 저 멀리서 걸어와도 그 존재가 빛나고 밝고 반듯하고 크다. 광(光)하고 명(明)하고 정(正)하고 대(大)한 것이다. 사람의 몸이 빛나지 않으면 불이 꺼진 것과 같다. 불이 꺼진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불 꺼진 사람을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공자는 인류에게 불을 켜 주고자 했다. 치국(治國)의 근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근본은 수신(修身)에 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 불을 켜는 것이다. 성인이 백성들에게 불을 켜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예를 들어 공자가 어느 곳에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백성은 그 순간 본성이 회복되면서 불이 켜진다. 이를 과화(過化)라 한다.

이언교지자(以言教之者)는 불종(不從)하고 이신교지자(以身教之者)는 종(從)하니라 하였다. 말로써 가르치는 군주는 백성이 따르지 않고, 몸으로써 가르치는 군주는 백성이 따른다는 말이다. 유교 교육의 기본방향은 몸으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몸이 본(本)이 되어 만백성이 본받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맹자가 "저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저 산을 넘어가 본 사람에게 물어 보라"고 했다.

인생 백년 길을, 길을 몰라 평생을 헤매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성공하는 첩경이고, 또 무엇이 실패하는 원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점에 가면 수십 만 권의 책들이 있다. 그 모든 책을 다 읽자면 열 평생을 살아도 모자랄 것이다. 그 중 어떤 책은 혹세무민하고 또 어떤 책은 너무 출세 지향적이다. 인간성이라고 볼 수 없고, 결만 화려하고 기교만 넘친다. 이 세상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백년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요즘 '노인문제', '젊은 지도자'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는 생각이 짧은데서 나오는 말들이다. 노인을 사회의 문제가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가 하면, 젊은이는 학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는 세상이다. 기계공업에서도 경험치

를 우대하듯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경영하는 일에도 경험치가 중요하다.

군자(君子)의 도(道)는 성(誠)과 경(敬)

성현(聖賢)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유교는 나(我)에게 남(人)이 있게 하는 가르침이다. 사람과 만물은 크게 나와 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 동물, 광물, 자연 등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남(人, 物)이다. 이 세상은 나란 존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남이 없으면 한 시도 살 수 없다. 그만큼 남은 나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높다.

<대학>에서는 성공의 요체로 경(敬)을 내세운다. 경은 몸을 공손히 하는 공(恭)과 마음을 공손히 하는 경(敬)을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서는 천하를 다스리는 요체(要諦)도 공경할 경(敬) 한 자로 정리한다. 경을 행할 때만이 나에게 남이 있고 천하가 있다. 내가 경을 행함에는 나를 이루어야 한다. <중용(中庸)>에서는 우주만물의 이치를 정성 성(誠) 한 자로 축약한다. 나 자신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성되며, 남에게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공경히 하여야 한다. 이것이 몸에 배이게 해야 한다.

군자지도(君子之道)는 성경야(誠敬也)라. 군자의 도는 성과 경이다. <중용>에서 '성즉명의(誠則明矣)요 명즉성의(明則誠矣)니라' 하였다. 성(誠)하면 명(明)하고 명(明)하면 성(誠)한다. 어두운 사람(不明者)이 남과 만물을 공경할 리 없다. 퇴계(退溪) 이황(李滉)도 평생 남이 글을 칭하면 거의 대부분 경(敬) 한 자를 써 주었다. 경이야말로 이 나라를 있게 한 근본이다.

사람으로서 몸을 만드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중국 관리들은 <논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묻는다. <논어>는 바쁘면 많이 읽을 것도 없이 앞의 세 줄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군자의 3대 조건이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이면 不亦君子乎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

중국의 가는 곳마다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면 불역낙호(不亦樂乎)아'라는 글귀가 나붙어 있다. 붉은 현수막으로 만들어 걸어 놓는가 하면, 공자가 세웠던 노(魯)나라 수도인 곡부(曲阜)에서는 한 때 거리의 전신주와 가로등 하나 하나에 <논어> 문장 한 줄씩을 걸어, 쪽 따라 읽으면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그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술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벗이 오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볼 것이 있어야 하고,



■ (위에서 부터)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김동현 한무개발 사장, 김성수 전 경기부지사, 남기현 NGO 지도자총연합 총재

둘째 배울 것이 있어야 하고, 셋째 얻을 것이 있어야 하고, 넷째 즐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에 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적다고 한다. 이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이다.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선조이래, 볼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고, 오면 즐거운 나라와 집을 추구하였다. 오죽하면 칭찬에 인색한 중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겠는가. 또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접인 동국(東國)이라는 호칭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비를 동유(東儒)라고 불렀다.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예(禮), 집, 옷감, 책, 사람의 자세, 글씨

등을 높이 평가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가지고 간 외교문서들 중에서 좋은 글씨를 골라 체본으로 삼아 글씨 연습을 했다는 증거가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글씨 쓰는 분들을 보면 안진경(顔眞卿), 왕희지(王羲之)와 같은 중국 서예가의 글씨를 본받고자 노력한다. 사실 조선체가 중국체보다 서너 단계 위이다. 우리나라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서체를 국체로 삼았다. 우리나라 국체의 특징은 공손하고 단정하며, 교만하지 않다. 뭇손 뜻 하면서도 볼수록 정이 가는 글씨가 조선체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건륭(乾隆), 옹정(雍正) 등도 조선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맹자〉에 '이대사소자(以大事小者)는 낙천자야(樂天者也)요 이소사대자(以小事大者)는 외천자야(畏天者也)니라'라고 하였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이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낙천자는 사해(四海)를 보존하지만, 외천자는 자기 나라밖에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 선조는, 예(禮)로써 겉으로는 외천을 했지만 실상은 큰 나라를 가르쳤다.

중국은 조선에서 사신들이 오면 그들의 아침 기상에서 저녁 취침까지의 일과를 면밀하게 관찰했다. 자시(子時)(밤11시~새벽1시)에 잠을 자고 인시(寅時)(새벽3시~5시)에 일어나 해 뜨는 것을 지켜봤다. 〈소학(小學)〉에 '쇄소응대진퇴지절(灑掃應對進退之節)과 예악사어수지

문(禮樂射御書數之文)'이라 했다. 선인(先人)들은 어려서부터 물 뿌리고, 비로 쓸고, 부르면 '예!' 하고 답하고, 무엇을 물으면 대답하고, 사람

천하를 얻는데 도(道)가 있으니 먼저 백성을 얻고, 백성을 얻는데 도가 있으니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도가 있으니 백성이 하고자 하고 원하는 바를 몰아다 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을 대하여 맞이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의 예절과 예와 음악, 활 쏘고 말타고, 글씨 쓰고 셈하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 때문에 여든이 되도록 〈소학〉을 읽지 않았다면 죽기 전에 읽고 가라는 것이 〈소학〉이라 할만 큼 참으로 그 내용이 절절하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사람으로서 몸을 만드는데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군자(君子)는 몸 그 자체가 학교

군자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어〉의 도처에 많은 표현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이다. 군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만백성을 편안케 해야 하는 소임이 있다.

어느 날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군자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공자께서는 "수기이경(修己以敬)-자기 몸을 닦음으로써 남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자로가 "그뿐입니까?"하고 묻자 "수기이안(修己安人)-몸을 닦아 남을 편안케 하는 것"이라고 답하셨다.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자 공자께서 다시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주지실천하야(桀紂之失天下也)는 실기민야(失其民也)요 실기민자(失其民者)는 실기심야(失其心也)라" 하였다. 폭군인 하(夏)나라 걸왕과 은(殷)나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득천하(得天下)에 유도(有道)하니 득기민(得其民)이면 사득천하의(斯得天下矣)니라. 득기민(得其民)이 유도(有道)하니 득기심(得其心)이면 사득민(斯得民矣)리라. 득기심(得其心)이 유도(有道)하니 소욕(所欲)을 여지취지(與之聚之)요 소오(所惡)를 무시이아(勿施爾也)니라" 천하를 얻는데 도(道)가 있으니 먼저 백성을 얻고, 백성을 얻는데 도가 있으니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도가 있으니 백성이 하고자 하고 원하는 바를 몰아다 주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천하를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백성은 첫째, 오래 살고 싶어하고 둘째, 넉넉하게 살고 싶어하고, 셋째, 마음 편하고 싶고, 넷째 몸 편하고 싶어한다. 요약하면 행복과 안

전이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는 국민을 넉넉한 삶 속에 몸과 마음이 편안케 해 오래 살도록 해야 할 소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문제는 몸이다. <주역>에 보면 낮은 곳에 물이 모이고 높은 곳에 바람이 분다고 했다. 내 몸을 낮추면 천하 사람들이 내게 오고, 내 몸을 높이면 오는 것이라곤 태풍 같은 바람밖에 없다.

천하를 얻는 요체는 서두에 말했듯이 경(敬)에 있다. 옛날에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교서를 내리면서 맨 끝에 경재(敬哉)라. 경히 할지라고 했다. 유가에서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경해서 그 령고, 실패한 사람은 불경(不敬)해서 그렇다고 한다. 성공과 실패를 경·불경으로써 판가름하는 것이다. 불경한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경한 것이다.

군자는 백성을 가르치고(敎) 다스린다(治). 정치는 사랑으로 백성을 바로 잡으려(禮)로써 다스린다. 인정 예치(仁政禮治)이다. 유교에서는 정치라는 말 대신 치교(治敎)라고 한다. 옛날에는 벼슬자리에서 낙향하면 사랑방에 학교를 개설해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군왕(君王)의 부름을 받으면 벼슬자리에 나아가 백성을 다스렸다. 군자는 몸 그 자체가 학교이다. 왕은 왕만큼, 정승은 정승만큼 학교이다. 그런 만큼 군자에게 있어서 몸가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자는 군자에게 정기의관(正其衣冠)하고, 존기침시(尊其瞻視)하고, 수용필공(手容必恭)하고, 족용필중(足容必重)이라 했다. 의관을 정제하고 상대방 바라보기를 존엄히 하며 손은 공손히 하고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또 잠심이거(潛心以居)하며, 대월상제(對越上帝)하라 했다. 마음을 물 아래로 폭 가라앉히고 상대방을 상제(上帝)처럼 대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쉽게 이 일 저 일에 손을 대거나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경(敬)으로 통한다.

승사여제(承事如祭)하고 수구여병(守口如瓶)이라. 남의 일을 말아서는 마치 부모님 제사를 지내듯 경건히 하고, 말은 병의 입처럼 아껴야 한다.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술병을 받으면 제자가 그 술병을 받아놓고 바로 절을 하고 반성을 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이 많음을 술병으로써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제일 경계한 사람도 바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그 스스로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성실함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군자는 더욱 동동촉촉(洞洞燭燭)

해야 한다. 초겨울에 살얼음 위를 걷듯이, 구멍 뚫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삼가하는 것이 군자의 일생이다.

군자는 본시 가난하다. 맹자께서 "기신정이천하귀지(其身正而天下歸之)라" 하시었다. 그 몸이 올바르면 천하가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 사람이 됨이 올바르면, 온 천하의 재산을 그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온 천하의 사람들을 그의 사람으로 생각한다.


경(敬)을 행하는 자가 남(人)을 얻고 천하를 얻는다

공자의 도는 일관(一貫)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일(貫一)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성후성(先聖後聖)이 기규일야(其揆一也)"이다. 먼저 다녀가신 성인이나 나중에 다녀가신 성인이나 그 이치의 해아림은 한 가지이다. 어느 골짜기로 어느 등성으로 올라가든 정상에 이르는 이치는 같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대적할 만한 책은 논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논어에 대적할 만한 책은 성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규일야(其揆一也) 아니겠는가.

공자의 가르침은 현실생활이며, 정치철학 내지 경영철학의 극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天下有道엔 小德이 役大德하며 小賢이 役大賢하고
天下無道엔 小役大며 弱役強하니
斯二者는 天也니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하니라
齊景公이 曰 旣不能命하고 又不受命이면 是는 絕物也라하고 涕出而女
於吳하니라

천하에 정도가 행해질 때는 큰 덕을 지닌 사람한테 작은 덕을 지닌 사람이 부림을 받고, 큰 현자에게 작은 현자가 부림을 받는다. 천하에 정도가 행해짐이 없을 때에는 작은 것이 큰 것에게 부러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부러진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의 이치이니,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바는 우리 몸을 공손히 하고 마음을 공손히 하는 경(敬)이다. 예(禮)는 말할 것도 없다. 기업과 상품이 불경(不敬)하면 고객은 떠난다. 경자(敬者)는 득인(得人)하고 득천하(得天下)한다. 경을 하는 사람은 남(人)을 얻고 천하를 얻는다. 이 시대를 살려면 남(人)과 경(敬)을 소중히 하여야 한다. 



Mr. Toilet

인류의 삶의 질 높이는 화장실 문화

심재덕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 국회의원



사진 오경근 원장



▶ 세계 최초의 화장실 하우스 해우재

"인류는 화장실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60여개국이 참여하는 민간국제기구인 세계화장실협회를 한국 주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요.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 세계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 위생시설 미비로 고통받고 있는 절반 가까운 인류를 위해 나머지 절반이 보편적 인류애를 발휘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행사의 요체다. 개도국 및 후진국 국민과 긴급재난지역의 국민들을 위한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 세계화장실협회의 목표다. 화장실을 통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자는 것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세계화장실협회 조직위원장으로 이만 행사를 주도한 심재덕 국

의원이 초대회장에 선임됐다.

심 회장은 'Mr. Toilet'으로 불릴 만큼 화장실에 대한 관심과 애착, 그리고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 수원시장 재직 때인 90년대 중반부터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을 시작해 99년에는 한국화장실협회를 창설하는 등 지난 10년 넘게 전 세계 화장실 문화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를 앞두고는 사재를 털어 수원에 세계 최대 변기 모양의 집인 '해우재'를 만들어 총회 홍보에 큰 역할을 하게 했다.

위생적인 화장실에서 '행복한 배설'을 하는 것이 웰빙의 으뜸 조건이라고 말하는 심 회장. 모든 인류가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화장실 짓기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그를 만나 협회 창설 배경과 함께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심재덕 회장

1939년 생으로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대에서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민선 1, 2대 수원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장실문화운동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99년 (사)한국화장실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했으며,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장으로 이번 창립총회를 주도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편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임돼 향후 협회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맡게 됐다. 현재 17대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의정활동 중이다.

먼저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에서 협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해주시죠.



▶ 세계화장실협회 초대회장에 선임된 심재덕 의원

'화장실 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지난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60여개국 보건·환경

분야 장·차관, 화장실협회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규약을 채택하고 세계화장실협회(WTA : World Toilet Association)가 공식 출범했죠. 이번 행사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열린 행사로 국제민간기구인 세계화장실협회가 한국 주도로 설립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가 한국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문화만큼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프리카 빈곤국의 어린이나,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인류가 행복을 누리게 만들겠다는 것이 협회의 목적입니다.

지난 5월 미국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화장실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대단한 국가 대단한 도시 대단한 건물의 화장실이 정작 위생상으로는 관리상으로는 엉망이었습다. 도시와 국가의 격에 맞지 않는 화장실이었죠. 그런데 브라질 상파울로에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협회 창설이 분명히 성공할 거란 확신이었죠. 미국이 돈이 없어 화장실문화를 바꾸지 않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부 선진국에서는 화장실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동안 터부시해왔던 화장실 문제를 의제로 해서 한국의 주도하에 세계 협회를 창립했다는 것은 분명 보람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화장실을 통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운동에 한국이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회 기간 중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생적인 화장실 보급을 통해 빈곤, 위생문제를 해결 하자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은 세계화장실 문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와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각 지역 화장실 문화, 시설 실태조사 ▲화장실 관련 법령제정 지원 ▲세계적

재난 발생 지역에 화장실 보급 지원 ▲물 절약과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 ▲화장실 관련 기술과 세계기술 표준 개발보급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화장실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협회가 만들어질 만큼 화장실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었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화장실 혁명을 주창하는 것은 그만큼 화장실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생시설 미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40%인 26억명이 아직도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관련 시설로 인해 질병에 노출되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요. 불량한 식수와 부적절한 위생시설에서 비롯된 수인성 전염병으로 매년 200만명이 죽어 가는 실정이죠. UN은 이를 바탕으로 2008년을 '세계 위생의 해'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26억명의 절반이 2015년까지 위생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UN MDGs(새천년개발목표)를 추진할 계획에 있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이색적인 행사가 많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각국 대표단이 자국에서 가져온 물을 붓는 지구 평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함수식이었죠. 총회 기간 중에는 화장실과 환경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수원에 완공된 세계 최초의 화장실 하우스 '해우재' 및 국내 대표 화장실 투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 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화장실·육식엑스포가 열려 세계 각국의 화장실 및 육식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지구 평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전시로는 과자로 만든 '헨젤과 그레텔 화장실', 물 안 쓰는 변기, 내부가 흰치보이지만 변기에 앉는 순간 투명 유리문이 뿌연게 흐려지는 이색 화장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화장실들이 공개돼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해우재'의 모습을 본떠 만든 특별전시관에서는 변기에 앉아 체중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단까지 받는 '스마트 변기' 체험 행사가 열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변기 모양의 집 '해우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데요. 어떤 집인지 소개해주시죠.

해우재(解憂齋)는 '근심 걱정을 푸는 집'이라는 뜻으로 세계 최초의 변



▶(上)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해우재'를 둘러보고 있다.
▶(下) 11월 11일 해우재 준공식이 있었다.



기 모양을 본뜬 집입니다. 해우재를 통해 화장실이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성소'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또 이

번 창립총회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구상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시작해 11월 1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는 외신기자, 각국 대표 등 150여명이 해우재를 방문해 한국의 화장실 문화 운동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지요.

해우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20㎡ 규모로 가운데가 비어 있는 변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질반질한 흰색 외벽과 둥근 곡선, 정원으로 난 거실의 전면 유리벽은 시야를 넓혀 주는 효과를 주죠.

집안에는 3개의 화장실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1층 화장실은 거실로 향하는 벽이 특수유리로 만들어져 평소에는 안과 밖이 투명하다가 사용할 때 스위치를 켜면 불투명하게 바뀌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게 했습니다. 2층은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과 함께 작은 정원으로 꾸몄죠. 2층 화장실 벽도 모두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 정원과 산으로 둘러 쌓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모든 화장실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음악이 흐르도록 했으며, 물 절약 변기가 설치돼 일반 화장실보다 물의 양을 70% 정도 줄였습니다.

한편 해우재는 완공과 함께 '한국 최초 최대의 변기모양 조형물'로 한국 기네스에 등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해우재는 회장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건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해우재를 통한 화장실 문화 운동은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해우재를 짓는 데는 가족들의 힘이 컸어요. 훗날 지금의 정신과 뜻을 읽을 수 있도록 누구의 재산으로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가족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수원시장으로 재직하던 96년도부터입니다. 당시 수원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요?"라고 묻더군요. 순간적으로 "수원을 세계에서 화장실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말로써 약속한 일이었지만 정말 그때부터 화장실 문화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옴므화장실 콘테스트'를 추진하면서 화장실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 결과 지금 수원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50여개가 신축돼 명실상부한 화장실 문화의 메카도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문화는 현재 어느 수준인가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화장실 위생상태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더럽기 그지없고, 휴지도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었죠. 그러던 화장실이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한 건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입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화장실 혁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사례죠. 이번 총회도 한국의 화장실문화운동이 만들어온 그간의 성과가 세계로 확산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협회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시죠.

세계화장실협회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화장실을 변화시켜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데 기여하는 것, 셋째는 배설의 공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협회를 유엔 산하기구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는 창립을 계기로 UN, 세계보건기구 등 뜻을 같이 하는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재해와 전쟁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역에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보급하는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핵심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선진국에는 기존 화장실 혁신을 가속화해 개도국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후진국에는 국민 보건에 역점을 뒀 화장실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겁니다.

그리고 해우재 준공을 계기로 모금에 들어간 '1달러 기부운동'을 국내외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해우재를 찾는 사람들에게 1달러를 기부 받아 화장실 문화 운동에 사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심재덕 의원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협회의 뜻에 기업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뜻에서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협회 창립은 국내 화장실 및 위생 관련 산업의 성장 계기가 될 수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화장실 관련 기술표준 제정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위생도기 설계나 디자인 등 관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절반에 가까운 소외계층 26억명을 2015년 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간 103억 달러, 완전히 줄이는데는 226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관련 업계의 시장규모는 무려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비단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기업의 국제 기여도나 인류에 적 차원에서 기업들이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인재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1970년대 이미 인재개발이라는 비전을 품고 경영자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매주 열리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그 역사나 정통성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다가오는 2008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기관으로 성장해나가기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KTHD)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세계화장실협회 서울선언문 전문]

세계화장실협회는 모든 인류가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화장실 개선을 위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화장실을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오수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것이다.

▲ 세계 재난지역 화장실 긴급구호

세계화장실협회는 지진이나 해일, 전쟁 등 대재난 후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실의 복구와 긴급 구호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에 화장실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재난 지역에서의 전염병이라는 제2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화장실 시설을 발 빠르게 공급할 것입니다.

▲ 화장실 정보 교류 및 교육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관련 기술 개발 및 정보교류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각국 화장실 문화와 위생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조건에 맞는 화장실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화장실 시스템과 물 절약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각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해나갈 것입니다.

▲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

세계화장실협회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 개념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는 인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임을 알릴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동반자의 사용편의를 생각하는 인간중심의 화장실을 보급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 화장실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산

화장실이 인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국제적인 관심은 부족합니다. 각국 화장실의 부적절한 위생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자 국가 이미지에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변해야 합니다.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화장실 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고, 인류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화장실 관련 최첨단 기술과 정보의 교류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관련 기술과 정보의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국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 발간과 위생시설 미비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화장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 등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 축적, 국제적 공유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 국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현재 빈곤과 기근, 지진, 쓰나미, 전쟁 등 대재난을 경험한 지역에 대한 국제원조에서 화장실 시설과 위생 관련 구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지원사업은 '2008 세계 위생의 해'를 앞두고 국제협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MDGs의 위생 목표와 공적개발원조 확대의 목표를 연계하여 화장실 보급과 지원에 관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개발도상국의 위생상황은 놀라운 속도로 개선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다녀와서 동북아 경제거점의 희망을 보다



▶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의 생산현장 사진제공: 아이씨뱅크(주)



정문호
동국산업(주) 부회장

지난 11월 13일 인간개발연구원 개성공단 방문단 일행 70명은 반세기 넘는 분단의 벽을 넘어 북녘땅을 밟는다는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버스에 올랐다. 강남섬유센터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여 올림픽대로와 통일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아침안개가 내려앉은 만추(晩秋)의 들녘에는 북쪽에서 날아온 겨울철새들이 수백 마리씩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약 1시간 후 통일로를 지나 도라산 철도역 옆 경의선도로로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통행검사소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끝내고 개성공단에 도착했다.

멀게만 느껴왔던 개성 남북합작으로 동북아의 경제거점 꿈꿔



▶ 상 개성공업지구개발계획도
▶ 소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전력

개성은 서울에서 60km, 평양에서 160km 지점에 있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어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멀게만 느껴졌던 개성이 너무 가깝다는 느낌이였다. 북측 경비병의 경직된 언행에서도 폐쇄된 북한의 사회상을 읽을 수 있었다. 산에 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 다가선 개성공단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 밑에 펼쳐진 황량한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개성공단은 개성시 인근 총 용지면적 2,000만평에 공단 850만평과 배후도시 1,150만평으로 구성되어 북쪽의 토지와 인력,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경제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현대아산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토지 이용기간은 50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토지분양가(토지사용권리)는 평당 14만 9천원이다. 1단계 100만평이 개발완료단계에 있어 현재 분양된 필지 182개, 가동기업 52개로 1단계 완료 시에는 452개 기업과 근로자 7~10만명이 고용될 예정이다.

2007년 9월까지의 생산액은 1억2,500만 달러로 이 중 2,740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한다. 근로시간은 법정 주 48시간, 금년 상반기 평균은 주 56.4시간(연장, 휴일포함)이며, 법정 노임은 월 60.4달러, 상반기 평균 70.2달러(노임 62.4, 사회보험료 7.8달러 포함)이다.

현재 인력은 남측 773명, 북측 1만9,461명으로 총 2만 234명이며, 학력은 고졸 78.4%, 전문대학 10.6%, 대학 11%이다. 연령은 20대 40.7%, 30대 46%, 40대 12.2%, 50대 1.1%이고, 여성이 83.1%, 남성 16.9%, 평균 연령은 31.3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이익실현과 자본회수 빠르고, 기술 설비투자 업체도 회수는 늦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투자 효과 볼 수 있어
이제 그들 스스로 개혁 개방의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기업세금은 결산이익의 14%이고 경공업, 첨단기술분야 등 북한당국이 장려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10%, 1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이익이 난 해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개성공단 내 반출입 물자를 포함한 남북 교역 물자는 관세면제이다.

공단 안에는 한국전력, 토지공사, 현대아산, 우리은행지점, 병원 그리고 웨미리마트가 입주해 있었고, 간단한 현황 설명도 있었다. 점심은 '봉동관'에서 평양식 냉면을 먹으면서 북한미녀들의 간단한 노래공연도 들을 수 있었다.



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외지에서 데려오려면 숙소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서 숙소동 건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에 의하면 북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얼굴색이 변한다고 한다. 공장에서 제공하는 점심 한 끼의 고깃국 덕분에 건강한 얼굴로 바뀐다는 것이다. 연장근무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했다.

항간에는 입주업체들의 성공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섬유나 봉제 같이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이익실현과 자본회수가 빠르고, 기술과 설비투자를 한 업체는 회수가 늦지만 길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의 장벽이 정치이념과는 달리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 관습, 언어의 이해, 의식구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다고 한다.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나중에는 서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 가끔은 부딪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간접투자 개선 중
노동집약산업은 단기성과도 커

오후에는 스포츠화 전문생산업체인 '삼덕스타필드'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 설명과 함께 공장생산과정을 둘러보았다. 이 공장에는 북측 근로자 2,000명과 남측 근로자 13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품 중 일부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의류봉제 생산업체인 '신원예벤 에셀도' 방문하여 생산공정 견학과 함께 현황설명도 있었다. 이 공장에는 북측 근로자 880명과 남측 근로자 10명이 연간 55만 장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시판한다고 했다.

초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전기, 공업용수, 통신 등 사회간접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3통(통신, 통행, 통관)에 애로가 많고, 아직 인터넷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다고 했다.

북한 인력의 질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조금만 교육시키면 생산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특히 섬유, 봉제 부분은 생산성이 남측보다 앞선다고 했다.


문제는 인력확보이다. 개성인구가 15만 정도여서 많은 젊은 인

개혁 개방이 북한의 해답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최근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당국은 개혁, 개방의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민족의 자주, 자립을 구가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을 외세의 침략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이 폐쇄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경제가 정체되어 사회가 활기를 잃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개혁과 개방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중국, 베트남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다.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다. 북측사람들이 잘사는 방법을 이해시키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 같다. 개인의 사유재산제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각자 스스로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남북의 평화가 유지되며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부강한 통일한국의 그날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오후 4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돌아왔다. 



제36회 양양군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10월 25일(목)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관리

맹광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는 본원과 양양군(군수 이진호)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양양아카데미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기혁신 및 자기계발을 위한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양양군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양양아카데미가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관리"를 주제로 제36회 강연을 해주신 맹광호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춤 고 배고프던 시절은 지났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지에 관한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가 발전된 사회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사회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교육이 만든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질병의 패턴도 변화 그동안 예방에 소홀했던 것 사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는 많이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건강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의대를 졸업하고 한 번도 환자를 본적이 없다. 의대를 졸업하면 내과나 외과와 같은 임상 의사가 되는 길이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 내가 택한 길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길이었다. 학생 때는 정신과를 지원하고 싶었으나 60년대 말, 이미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알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40~60년대 초에 한국 사람들이 앓는 질병은 대개 감염성 질병이었다. 종기나 설사, 발열 등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 병들은 사나흘 치료하면 완치되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병 등 병원에 자주 방문하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60년대 말 당시 외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20~30년 후엔 질병의 패턴이 바뀌어 만성질환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성질환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큰 피해이다. 다행히 의료보험이 생겨서 환자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다. 60년대에는 1년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쓰는 의료비가 15~20조원 정도였다. 작년의 경우 의료비는 40조원으로 늘어났다. 2010년쯤에는 6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년대에 이렇게 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40년간 종사해왔다

사실 10년 전쯤C 사람들이 듣기만 할 로 내려오는데 엄지는 더욱 많은 이 필요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 다른 것은 좋게 말하면 감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다는 것이지만 이에 반해 서양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실제로 60년대를 지나 70년대를 거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감에 따라 가난할 때 생각만한 병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병이 생겨났다. 스스로 느끼기에 국민들은 그들이 누리는 경제수준 만큼의 건강 수준을 보장받지 못한다. 평균수명이 예전에 비해 늘어나 현재 남자는 77세, 여자는 82세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화방지 등 수명연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노화방지를 통해 100살이 넘도록 살고 싶은가?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 그보다 우리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8년이면 우리도 고령사회 진입

이제는 삶의 질에 관심 가질 때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400만명의 인구 중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70만명이다. 그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 노인들이 모두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른 나라가 없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를 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초고령사회 국가는 전 세계에 딱 한 곳이 있다. 바로 일본이 작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물론 우리도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에서 14% 즉, 고령사회가 되는데 150년이 걸렸다. 고령화가 서서히 일어난 것이다. 영국

이나 이탈리아, 독일도 이미 고령사회를 넘었다. 이들 국가도 70년 정도 걸렸다. 이에 반해 일본은 24년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했다. 우리의 경우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18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어제 호스피스들을 위한 강의를 했는데, 호스피



맹광호 교수

1943년 생으로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를 마쳤으며, 미국 하와이대 보건대학원 이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68년부터 가톨릭대 예방의학과에서 연구활동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처장, 대학본부 연구 및 국제협력조정처장, 의과대학장, 산업보건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 대한예방의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스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24만명이 사망하는데, 3분의 1이 암으로 또 다른 3분의 1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암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사느냐'이다.

우리도 죽기 전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 후회를 할까? 바빠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노력하고 성찰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다. 결국은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인구 중에 하루 평균 10명이 자살을 했다. 사회가 고령화 되는 인구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기 오기 전에 양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인구가 약 3만명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4700명 정도 됐다. 전체의 15%다. 즉, 양양군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73년에 호주에 갔었다. 그곳의 병원시설관리, 보건행정을 봤는데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는 보건소, 또 하나는 노인 아파트였다. 15층 짜리 노인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데,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가능하다. 또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병원도 따로 있었다. 당시 돈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200달러를 줬다. 그 돈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무료 양로원도 전국적으로 몇백 명이나 수용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거동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병에 걸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매일 10명씩 자살하는 현실을 맞고 있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면 괜찮으나 그렇지 못하기에 힘든 것이다.

건강수명 위해 생활패턴 바꿔야

병 얻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어

평균수명이 아닌 건강수명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병 없이 몇 년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건강수명이다. 우리나라 남자의 건강수명은 64세이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은 한 가지, 4명은 3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50~60대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예언할 수 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노후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젊어서부터 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평균수명이 우리보다 6년 정도 길지만 건강수명은 8년 정도 길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오랜 병치레를 한다. 이유는 젊어서부터 만성질환을 일으킬만한 위나 심장, 간, 관절의 원인을 안고 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담배이고, 그 다음은 술이다.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마시는 것이 물론 건강에 좋다. 하지만 조금이란 게 얼마를 말할까? 포도주의 경우 하루 두 잔, 소주는 한잔을 말한다. 문제는 그걸로 양이 차겠는가? 그래서 하루 두 잔이라 치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음을 한다. 양이 늘면 늘수록 심장과 간에 무리가 간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로 먼저 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간으로 간다. 간에서는 좋은걸 저장하고 나쁜 걸 해독한다. 술이나 짠 음식 등이 들어오면 간이 놀라서 해독을 시키는데, 간이 일을 할만큼만 먹어야 하지만 음주 시 혹은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할 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간질환환자가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2위이다. 지방간, 간경화, 간암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담배도 마찬가지이다. 사망자를 부검했을 때 흡연자의 폐를 보면 완전히 까맣다. 옹케 폐암은 걸리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평균수명이 적었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진 지금 폐암이 걸리지 않더라도 폐의 과리가 다 망가져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위암이나 간암 등은 줄고 있지만 폐암은 계속 늘어난다.

다른 것보다 담배 하나만 끊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진다. 2001년 이주일이씨가 사망하기 전에 금연 광고를 찍었다. 침대에 걸터앉아 "여러분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광고를 찍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참 아쉬워했었다. 자신이 평균수명만큼 10년만 더 살아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흡연 후 25년 정도 후에 폐암이 발생한다고 한다. 80년대부터 담배 소비량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25년 간격으로 나란히 간다. 담배의 소비가 늘어나면 25년 뒤에 사망자 수가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한국 사람들은 머리로 받아들이고도 습사리 따라가지 못한다. 병이 나서 고통스러워져야 정신을 차린다.

정부가 건강복지 위한 인프라 마련해야

어려서부터 건강교육 제도화도 필수

33년 전은 물론 지금 호주의 보건소는 고층건물이 별로 없다. 공원과 같다. 약 1천여평 되는 땅에 단독건물 3개가 있고, 마당 한가운데 수영장도 있다. 아침 8시 반이 되면 미니버스가 동네를 돌며 노인들을 태운다. 보건소에 온 노인들은 치료를 받기도 하고, 수영도 하며 시간을 보낸 후 오후 3시 반이면 귀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소를 보면 노인들이 약을 받고자 줄을 서있다. 이것이 고령화사회에 대해 준비된 사회와 준비되지 않은 사회의 차이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자체가 예방을 위해 담배, 술, 나쁜 식생활 등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에 30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아침 점심 저녁 1000칼로리씩 먹으면 된다. 하지만 보통 아침은 걸러서 0칼로리거나 우유 하나로 때워서 100칼로리 정도 섭취하고, 점심은 약 1000칼로리, 저녁은 2000칼로리를 먹는다. 총량은 같지만 0, 1000, 2000칼로리로 먹는 경우 비만이 된다.

음식이 맵고 짠 것도 문제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고쳐져야 한다. 그래도 농촌에 계신 분들은 할 일이 있기에 괜찮으나 도시인들은 운동량이 너무나 적다.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인 거동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신경을 써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문제와 건강문제를 해결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첫째 가는 국가사업이다.

또 하나,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건강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건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두어야 한다. 음식을 짜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야 한다. 청소년 흡연교육도 가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교육이 정말 중요시되어야 함을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생활해 보면 같은 나이지만 하는 행동이 다르다. 즉,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건강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책임은 물론 국가의 부담도 늘어난다.


노후건강은 젊어서부터의 책임

하루하루 삶의 소중함 깨달아야

최근에 새로 하는 일 중 하나가 한국약속재단을 만들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5가지 약속을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시작한 것인데, 그가 국무장관이 되기 전 미국약속재단을 만들어 5가지 약속을 제안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 5가지 약속은 첫째, 미국의 어른들이여!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어른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자. 둘째, 건강한 출발을 위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도록 약속을 하자. 셋째,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넷째,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다섯째, 지역사회에 봉사헌연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노후의 건강은 젊어서부터의 책임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나이지지 않는다면 하루 10명의 자살자가 2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고령화는 시한폭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건강문제를 생각할 때,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며 현재의 내 삶을 반성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개발의 새로운 꿈을 꾸며 보내는 2007년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2007

년은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70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해이기도 하다. 1937년에 태어나 8살에 광복을 맞았고, 13살에 6.25전쟁을 겪었다. 20대에는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겪었다. 68년은 대학교수가 된 해였고, 70년에는 학자의 꿈을 접고 '코리아마케팅'이라는 국가홍보 회사를 설립해 가난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에 투신했다.

72년은 코리아마케팅을 세계적인 무역회사로 키우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2개월간의 세계일주를 시도한 해이자 도중에 한국에서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선포로 미국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던 해이기도 하다. 국제적인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무역회사를 만들어보겠다는 꿈이 잔인하게 짓밟힌 괴로운 해였다.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업경영을 시도한 무지가 일으킨 대실패였다.

그러나 꿈을 가진 자에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케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리아마케팅의 실패가 30대 후반인 1975년 인간개발연구원을 창설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연구원과 함께 32년의 세월을 보낸 만 70세의 2007년. 그 마지막을 보내는 내 마음은 셀레기만 하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바 대로 제3의 인생계획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바쁘게 살아온 한해였다.

신년하례회를 겸한 금년 첫 연구회(제1484회)에는 2006년 절망의 시대상황을 깨고 2007년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차동업 신부를 초청하여 그의 화제작 <무지개원리>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강연을 들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이 강연회를 시작으로 30년간 그러했듯이 빠짐없이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지켰다. 지난 30여년간 많은 강사님들이 그러했듯이 차동업 신부와 정신적으로 가까운 지기가 되고 협력관계를 갖게된 것은 의미있는 인생수확이었다.

5월 3일에는 75년에 시작한 연구회가 1500회를 맞이하게 되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초청해 "세계화시대,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주영 경총 회장,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의 패널토의, 그리고 역대 강사를 대표한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회원을 대표한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의 감회 어린 축사 등이 이어져 뜻깊은 기념연구회를 갖기도 했다.

8월에는 여러 이유로 중단됐던 제주CEO포럼을 현대경영학당,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이용섭 진교부 장관,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황수 GE코리아 사장 등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수준 높

은 하계 연찬회를 부활시킬 수 있었다. 여간 다행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밀레니엄 경영자포럼으로 키워나갈 연구원의 새로운 과제를 다시 품게 됐다.

올 한해는 다른 해에 비해 회원친선행사가 많았던 해이다. CEO로서 기발한 착상으로 성공한 강우현 남이섬 사장의 초청으로 나미나 라공화국 선포식 행사에 회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뜻깊은 친선행사도 있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한 관광서비스산업이 어떤 형태로 성장해야 하는가를 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청강사로 인연을 맺은 강우현 사장의 따뜻한 배려를 얻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중인 연극 '휴먼코메디'를 단체로 관람한 프로그램은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색다른 문화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이색적인 강연으로 회원들에게 감명을 줬던 지승룡 민들레영도 사장의 배려로 회원친선 만찬을 겸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

무엇보다도 2007년을 보내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7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개성공단 방문 프로그램이다.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국방장관회담, 북핵 당사국들간 회의를 전후로 진행중이라 이번 개성공단 방문은 2007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올 한해 최고의 행사는 누가 뭐라 해도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다. 12명의 대선 후보가 등장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실망과 고뇌에 빠진 국민들의 불만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선정국을 관망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경제·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모델로 묵묵히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교육 등 제 분야를 아우르는 선진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여기에 우리 연구원이 힘차게 펼쳐 나갈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꿈과 비전이 있다. 세계의 평화, 인류의 번영, 인간 행복의 비전을 새롭게 펼쳐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연구원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꿈을 구체화하면서 2007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KHD**

창조 2007,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새로운 도전

창립32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2007년 한해도 쉬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연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체적 비전으로 현실화됨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2008년은 회원 및 회원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올 한해 연구원의 활동을 정리하고, 2008년도 연구원의 방향을 가능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세미나

창립32주년 기념세미나 & 출판기념회 성료
소통과 토론의 장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창립32주년 기념세미나가 2월 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다 가즈오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이 강사로 나선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경제부활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노다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리딩멤버로서 새로운 아시아시대를 열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조찬강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101인이 들려주는 성공비결 101가지>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렸다. 창립32주년을 기해 출판된 이 책은 정치한 여의도통신 대표기자, 조순 전 경제부총리, 장만기 본원 회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간의 학습과 소통, 토론의 장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올 한해도 변함없는 회원들의 참여로 11월 현재 1527회를 개최하고 있다. 송병락 서울대 교수, 강우현 남이섬 사장, 김경익

판도라TV 사장,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민홍규 국제제작단장, 강권서 기업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등 분야를 막론한 다양한 강사들이 참여해 열린 학습의 장을 만들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2008년 한해도 다양한 주제와 전문적인 강연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15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기념포럼



32년간을 쉬없이 달려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5월 3일로 1500회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

해 한덕수 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세계화시대,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롯데호텔 스파이어볼룸에서 3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 총리는 주제발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역설했다. 강연 후에는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태익 한국유라시아포럼 대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총리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25회 제주CEO포럼 'JEJU AGORA'
아이디어고라스와 한국기업의 힘



인간개발연구원, 현대경영학당,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공동 주최한 제25회 제주 아고라 통합세미나가 8월 1일~4일까지 제주신라호텔에서 오픈되었다. 올 제주 아고라에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유흥준 문화재청장, 김영주 산자부 장관,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김세원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일용 서울사회경제연구회장,

이용섭 건교부 장관,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황수 GE코리아 사장, 김영익 대한투자증권 부사장,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장, 이백용 바이텍시스템 사장, 송지혜 한국피아노교습법연구소장 등 정부 최고위 정책 브레인과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다양하고 심도있는 주제발표와 함께 우리 기업이 당면한 긴급과제와 대응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창조경영 인재경영 Fun경영



본원에서는 회원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행복한 독서경영 10분 독서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연장선상으로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를 3회에 걸쳐 진행했다.

2월 23일 SH공사 대강당에서 창조경영을 테마로 열린 제1회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영, 두바이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아래 <두바이>의 저자 서정민 중앙일보 중동 전문기자가 두바이의 무한 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우리 기업이 두바이를 어떻게 배우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인의 입장을 들려줬다.

5월 21일 강남우체국빌딩 대강당에서 인재경영을 테마로 열린 제2회 세미나에서는 <사람에게서 구하라>의 저자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이 "리더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자 자신을 닮는 사람"이란 점을 역설했다.

9월 17일 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편경영을 테마로 열린 제3회 세미나에서는 <편을 잡아라>의 저자 진수 테리가 무대에 올라 웃는 회사가 성공하며, 기업의 리더는 직원의 기를 살리는 치어리더가 되어 함을 강조했다.

교육

기업교육 제안 및 운영

본원은 32년간의 교육 노하우로 기업 및 단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맞춤 설계하는 기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국내의 우수한 강사진들과 함께하며 현장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문 영역의 강사진을 네트워크화 하여 진행 중이다. 올 한해 교육이 진행된 기업은 동부제강, 대웅제약, 서울세신청, SK텔레콤, 동양증권, 농협중앙교육원, 교육인적자원원수원,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업은행, 노동교육원, 동양인재개발원 등이며, 점차 정기교육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외교류

중동전문 특파원과 함께 한 두바이창조경영시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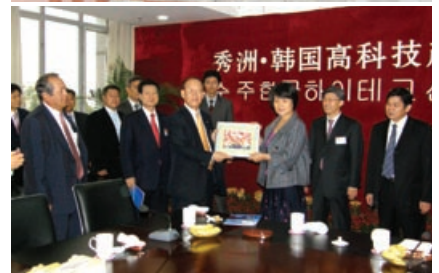
'두바이를 보기 전에 창조경영을 논하지 말라' 2월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를 통해 두바이의 창조경영을



논하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상상력의 제국' 두바이 현지를 시찰하는 창조경영 시찰단이 두바이를 방문했다. 이번 시찰은 서정민 중앙일보 카이로 특

파원이 함께 해 현지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져 더욱 의미 깊었다. 기업 CEO 및 임원, 자치단체장, 전문직업인 등이 참여한 시찰단은 5박6일 동안 세계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두바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국내의 경제불황을 극복할 돌파구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중국 가흥시 초청 수주공업연구원시찰단



중국 절강성 가흥시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진 수주공업연구원시찰단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가흥시 현지 투자환경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시찰단은 상해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흥시와의 이번 교류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참가 회원들 또한 실질적인 사업교류와 함께 협력을 약속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국제섬유신문사 주최
개성공단 투자시찰단 후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개성공단의 투자환경

을 조사하기 위한 투자시찰단이 지난 11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국제섬유신문사가 주최하고 본원이 후원한 이번 시찰단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 기업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시찰단은 개성공업지구 추진현황 설명회에 참석하고 현대아산 및 입주기업을 방문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대외협력

한중경제무역교류회 성료



'중국 길림성-한국간 경제무역교류 및 오찬회가 韓長賦 길림성 성장, 馬明 길림성 상무총장, 닝푸 쿠이 주한 중국대사,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원태 금호고속 사장 등 각계 지도자,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6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길림성 인민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길림성의 투자환경과 특혜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협력강화를 주문했으며, 참가자들은 중국 투자의 새로운 정보를 얻는 한편 교류의 시간을 통해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일본 경제금융인단 한국방문

오다케 요시키 AFLAC창업자·최고고문 외 21명의 일본금융인단이 본원 초청으로 7월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기업은행을

방문하고 강권석 회장 등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후지와라 시쿠야 전 일본은행 부총재가 26일 제151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해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본원은 3년 전부터 한일경제인 교류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일본 금융인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구원

행복한 독서경영 10분 독서운동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학습하는 조직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본원은 지난 32년간 조찬경영자연구회와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평생학습의 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원은 기업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나아가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독서경영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로 확대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2008년도부터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KHDI 院歌 '좋은 사람 좋은 세상' 헌정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500회를 기념하는 KHDI 院歌 '좋은 사람

좋은 세상'이 지난 5월 3일 1500회 기념포럼을 기해 본원에 헌정되었다. 노랫말을 지은 음악평론가 탁계석 선생은 "전체 노랫말은 창조와 믿음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그러면서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친근한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작곡을 맡은 전준선 소년소녀합창단연합회 회장 또한 "밝은 악상과 경쾌한 리듬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곡을 붙였다"고 밝혔다.

한리친선협회

한러경제협력증진 만찬 간담회 개최



본원 장만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리친선협회(회장 유종하 사이버MBA 회장)는 6월 20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연방상의 회장(전 러시아 총리 및 외무장관)을 초청해 한러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러시아 관련기업, 학계, 정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해 교류와 함께 프리마코프 회장의 주제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균 부원장 취임

김태균 부원장이 5월 2일부로 인간개발연구원 부원장에 취임했다. 김 부원장은 1964년 생으로 성균관대에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산업·조직심리학을 전공했다. 1992년 삼성그룹 교육전문인력으로 입사해 삼성인력개발원, 삼성 SDS 등에서 인재개발 및 교육기획 등의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회원친선행사

회원친선 - 나미나라공화국 방문



나미나라공화국 독립선언 1주년을 맞아 강우현 남이섬 사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남

이섬 방문 회원친선행사가 3월 1일 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회원들은 남이섬 곳곳을 둘러보면서 회원 간 친교와 가족나들이를 겸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친선 - 1500회 기념 회원친선골프대회



1500회 인간 개발경영자연 구회를 기념하는 회원친선골프대회가 5월 25일 인

경회를 중심으로 한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렉스필드C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이 우승을 이시원 부천 사장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회원사에서 협찬한 다양한 상품이 회원들에게 돌아갔다.

회원친선 - 휴먼코메디 단체관람

가을회원친선행사로 마련된 연극 '휴먼코메디' 단체관람 행사가 11월 27일 대학로 틴틴홀에서 있었다. 100여명의 회원 및 회원사 직원, 가족들은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가족 또는 회사 동료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크게 만족했다.

이종기업동우회 정기활동

이종기업동우회그룹(회장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2그룹 다락회(회장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지산 고문), 4그룹 인목회(회장 장찬기 해동재단 회장), 인경회, 지중해클럽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사 방문, 초청강연, 골프모임, 여행 등의 모임을 가지며 상호 친선 및 경영정보 공유 등 회원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1그룹에서는 5월 일본 도야마 지역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으며, 화목회에서는 6월 회원사 탐방으로 이웅국 신원헬트공업 회장의 당진공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YCF 정기모임

YCF(회장 최우영 성원개발 사장)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간 교류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YCF는 등산대회, 테마가 있는 모임 등을 꾸준히 개최하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친목모임에서 벗어

나 다양한 활동으로 연구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방자치

인간개발 지방자치아카데미



본원은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개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전남 장성군을 시작으로 활성화된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매년 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다.

2007년에는 20여개 신규 지자체의 정기적인 아카데미와 워크샵을 포함한 특강이 총 700여회 진행되었다. 신규로 아카데미가 개설된 지역은 가평군청, 진주시청, 의정부시청, 임실군청, 부여군청, 정선군청, 삼척시청, 군산시청, 양산시청, 성주군청, 부산시청, 서울 강서구청, 서울 종로구청, 부산 서구청, 광주 동구청, 대구 달서구청, 대전 중구청, 육군3군사령부 등이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2주년 특강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알려진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12주년을 맞이하여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정부혁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념특강을 개최했다. 장성아카데미

는 지난 1995년 9월 15일 첫 강의를 시작해 12년을 운영해오는 동안 군민과 공무원 등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하는 강의에 매회 500명을 상회하는 수강생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수강 연인원만 25만명을 넘어섰으며, 그동안 장성을 다녀간 강사진은 정·관·학·재·계의 저명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국엘엠아이

개인인 조직의 성공을 위한 LMI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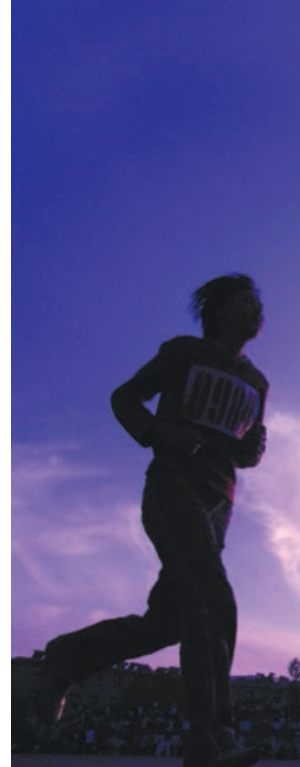


구성원 개개인이 삶과 일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명료하게 설정하며, 그 방향을 향해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로 정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해 잠재력을 극대화하게 만드는 퍼스널 리더십을 습관화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함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발전에 기여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현재 EPL 과정은 그 효과를 입증 받아 기업은 물론 대학에 서까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숙명여대에서는 교수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EPL 과정 1기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EPL 과정 10기까지 진행되고 있을 만큼 교육성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기업에서는 10월 LG실트론 임원리더십과정 1차 교육을 시작으로 4차 교육까지 마쳤다. 또한 1월 25일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와 제휴하여 EPL 코칭과정 1기 과정, 8월 30일 EPL 코칭과정 2기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다. 파일럿 과정으로는 4월 25일 EPL 77기 과정이 개강되어 총 16주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EPL 78기 과정이 개강 예정에 있어 LMI 프로그램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한국 성인의 75%가 유당불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유당불내증 검사하여 건강한 생활을 누리자!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



유당불내증은 전세계적으로 우유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점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무심코 지나가는 유당불내증이 체내에서 활성산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두유는 유당이 들어 있지 않고 우유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국제 대두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유당불내증 검사를 통하여 유당불내증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식이요법이 권고되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유당불내증은 한국인에게 발생률이 높다 - 성인의 75%가 유당불내증!

미국 MIT가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집계하여 1988년 미국 임상 영양 과학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5%가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유당불내증 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표1)

표 1. 국가별 유당소화장애 발생률

국가	대상자	발생률(%)	국가	대상자	발생률(%)
캐나다	인디언, 14~24세	63	한국	17~83세	75
	비인디언, 15~26세	6		15~64세	100
	에스키모, 20세 이상	83		인도	13~70세
미국	흑인, 17~53세	100	호주	코카서스인, 19~31세	20
	앵글로 미국인, 18~82세	15		중국인, 18~27세	90
	동양인, 23~38세	100			
	코카서스인, 18~59세	10			

출처 : Scrimshaw NS, Murray EB. Am J Clin Nutr. 1988 Oct;48(4 Suppl):1083-1159

유당의 소화과정과 유당불내증 발생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구성된 이당류이며, 락토오스(lactose) 또는 젖당이라고도 한다. 유당은 모유나 우유, 양유 즉, 모든 포유동물의 젖 속에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특히 우유에는 4~5g/100g이 함유되어 있다.

유당을 섭취하면 유당 분해효소인 락타아제에 의해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러나 락타아제 세포가 자연 탈락하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락타아제 세포 발육이 없는 경우, 유당을 섭취해도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분해되지 않고, 유당이 그대로 소장하부로 내려오고, 대장 내에 미생물이 유당을 발효시켜 수소이온과 CO2와 단쇄 지방산 등이 발생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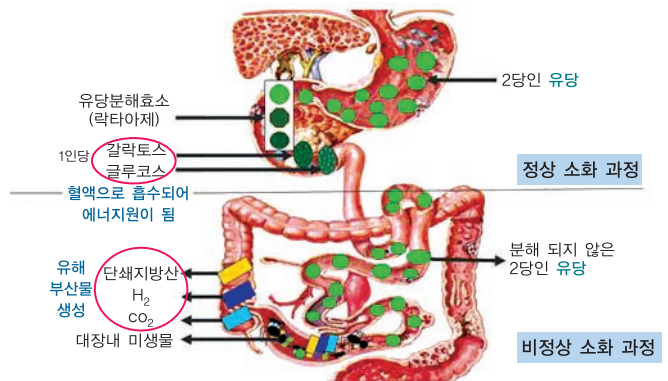


그림 1. 유당불내증 소화과정

소화되지 못한 유당은 장내에서 삼투압을 높여 수분이 장내로 유입되어 설사를 일으키며, 헛배와 복부 불편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와 같은 증상은 환자 체질에 의하여 4~5%에서만 발생한다.



유당불내증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이러한 증상뿐만 아니라 소화되지 못한 유당이 대장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발생하는 수소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어 혈액의 pH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유당이 발효될 때 발생하는 수소(H₂), 이산화탄소(CO₂), 단쇄 지방산(SCFA)이 체내 활성산소 발생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활성산소는 각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막 또는 핵속에 DNA 염기서열을 파괴하여 세포전체를 돌연변이로 만들 수 있으며, 돌연변이가 된 세포는 비정상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 체내에 여러 질병인 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치매증, 비대증 등 생활습관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유당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두유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유당이 없는 식이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유는 유당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을 일으킬 위험이 없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두유의 주요 기능성분을 살펴보면 ①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올리고당과 배변활동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②미국 FDA는 하루 25g씩 콩 단백질(두유 4팩)을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③콜레스테롤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특징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제거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④이소플라본은 항산화효과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여 심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⑤중년기 여성에게서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폐경기 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⑥이 외에도 항산화 효과가 높은 사포닌, 피틴산, 단백질 분해 저해제 등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유당불내증 검사를 통한 식생활 개선 이루어져야

유당불내증은 단순히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 설사, 복부 불쾌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내에서 생성된 수소 이온 등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의 대부분이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으나 골다공증, 폐경 장애 등의 위험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우유를 섭취하고 있다. 이렇듯 본인이 유당불내증 소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 채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당불내증 검사를 통해 본인이 유당불내증 소인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식생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OK!ID!**



정재원 명예회장

1917년 생으로 37년 의사검정고시에 합격한 의학박사 전문의이다. 일제시대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대체 유액 연구에 몰두한 결과 '베지밀'을 개발했다. 73년 정식품을 설립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유의 우수성을 설파하고 있는 '신념있는 콩 연구가'로 유명하다.



회원 소식

-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은 모교인 동국대학교에 6억원을 기부하였다. 동국대 총동창회장이기도 한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오영교 동국대 총장에게 108프로젝트 등 학교의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강영원)**은 지난 10월 30일,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7년도 디지털지식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주관기관장상을 받았다.
- **유진기업(회장 유재필)**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유진 마젤란 아파트 175가구 중 2008년 5월 입주예정인 72가구(79~121m)에 대한 일반 분양을 시작하였다.
- 신사정장 '니나리찌'로 유명한 의류업체 **원풍물산(회장 이원기)**이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하였다. 원풍물산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바이오 신약개발 사업에 진출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바이오 벤처기업 테라퀘스트의 지분 12%를 획득,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명사미술전 회장)**은 1995년 첫 번째 작품전을 가진 후 올해로 10번째 명사미술전을 개최하고 지난달 14일 인사아트센터 제2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주)수성(사장 김정배)**은 지난 10월 10일, '2007 전복세계물류박람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15개국 56개 업체를 포함, 총 220개 업체와 2만여 명의 물류기업인과 바이어들이 참여하였다.
- **김은숙 (주)마이에셋자산운용 회장**은 지난 9월 4일 여성신문사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BIG DREAM & SUCCESS(원장 공한수)**에서는 12월 11일(화) 오후 6시부터 안국교육장에서 서진규 하버드대 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제50차 LMI수료자 모임을 갖는다. '꿈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은 회원, 가족, 친지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 **윤영상 (주)다산 회장**은 지난 10월 주간한국이 주최한 2007 한국을 빛낸 기업인 大賞을 수상하였다.
- **서울도시가스(회장 배경운)**은 경영혁신을 위한 통합경영지원시스템 사업을

포스데이터에 수주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서울도시가스는 업무 표준화를 이룸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전 교육부 장관)**가 지난달 1일 한국인 최초로 전미 성인평생교육연합회(AAACE)가 수여하는 '국제 성인평생교육(ACE)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클라호마 대학 소재 IACE 명예의 전당에는 전세계 교육자중 평생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육자에게 매년 수여되는 상으로 1996년 7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후 올해 수상자 7명을 포함해 총 218명의 이름이 헌액돼 있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차영준 (주)유창 부사장**의 차남 형종군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15일(목) 웨딩의 전당 그랜드볼룸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임병문 (주)성신신소재 회장**의 자녀 대취군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25일(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본원의 법인회원인신 **강권석 기업은행 행장**께서 지난 11월 30일 오랜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재무부 기획관리사무관으로 관계에 입문했으며,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후 2004년 기업은행장에 취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본원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셨던 **이원설 기독교리더십연구원 이사장**께서 지난 11월 29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송실대 이사장, 한남대 총장, 한국기독교교회연맹 이사장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1일
원근건설	한익섭 회장	12월7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10일
신명인터내셔널(주)	최해규 회장	12월15일
(주)다영산업개발	이종원 대표이사	12월16일
(주)성도GL	김상래 사장	12월17일
예성화랑	한영희 대표	12월17일
원풍물산	이원기 회장	12월20일
(주)교보문고	권경현 대표이사	12월24일
한일시멘트(주)	허정섭 회장	12월28일
선진개발(주)	안민호 대표이사	12월29일

신규회원



임동신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회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6-366
- 전 화 : (02)521-0077 · 팩 스 : (02)521-0078
- 업 종 : 사회복지



백승경 (주)엔조이더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6 한신씨아릭스 서관 1106호
- 전 화 : 02-2149-8810 · 팩 스 : 02-2149-8813
- 업 종 : 공연기획, 전시기획



이재교 (주)듀오 이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5 백운빌딩 3층
- 전 화 : 02-3018-2352 · 팩 스 : 02-3018-2351
- 업 종 : 무역, 유통

연구원 소식

• 가을 회원친선행사 : 연극 '휴먼코미디' 단체관람

지난 11월 27일 회원친선 행사로 대학로 토티홀에서 연극 '휴먼코미디'를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이 연극은 본원 사무국 직원들이 관람 후 느꼈던 감동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제148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을 해주셨던 지승룡 민들레영토 사장께서는 참석한 회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들꽃바람부는 뜰'에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회원뿐 아니라 회원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사내 친목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들과 식사 스폰을 해주신 지승룡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업교육 제안 및 강사추천

본원에서는 32년간의 교육 노하우로 기업 및 단체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맞춤 제공해드리는 기업교육 제안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내의 우수한 강사진들과 함께하며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 영역의 강사진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 기업교육상담 장소영 차장(Tel. 02-2203-3500 내선107)

지자체 소식

• 원주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최우수기관 선정



강원도 원주시가 2007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기관과 우수마을 부문에서 흥업면 대안리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독특한 특색을 담아 자율적으로 주도해 온 프로젝트로 올 초부터 도내 18개 시·군, 142개 마을 등 전국 16개 시·도, 153개 시·군·구 1198개 마을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철원군 '열린학습관' 개관

강원도 철원군 2007 열린학습관이 지난달 13일 한탄강관광사업소 교



육관에서 이현중 부군수 등 철원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강기념 특강으로 방송인 이상벽씨가 "이상벽의 인생 이모작",

의학박사 윤방부씨가 "건강생활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열린학습관은 300명의 신청을 받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의식혁신 6개 분야를 주제로 강좌가 이루어진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당일에도 접수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부여 특산물 5만달러 대만에 수출

충남 부여군은 최근 대만에 포도와 멜론 등 지역 특산물 5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군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주관으로 농특산물을 선수출한 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원동백화점과 다이중 미프꼬시백화점, 가오송 몽시대소핑몰 등 3곳에서 판촉행사를 열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품목은 포도와 멜론 외에 김치, 밤, 배, 세척수삼 등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8만6천달러 상당의 농특산물을 추가로 대만에 수출할 예정이다.

2007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안녕하세요. 항상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로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회원님들과 소중한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님들과 한자리에 어울려 한 해의 노고와 열정에 서로 격려하고, 엔도르핀이 샘솟는 자리로 '송년의 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그간 소원했던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풍성한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후원에 참여해주신다면 소중하게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기억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 속에 묻어버리고, 희망찬 기대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즐거운 '송년의 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정만기 | 원장 양병무



사회 : 성우 배한성



미니강연
한국웃음요연구소
김영식 소장

Program

리셉션	일 시 : 2007년 12월 26일(수) 오후 6시 30분
오프닝 & 디너	장 소 : 조선히텔 1층 그랜드볼룸
미니강연	참가비 : 10만원 / 1인 (부부동반 및 가족동반 시 10% 할인)
문화공연	입금계좌 : 우리은행 132-055539-13-502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시상식 및 경품 추첨	문 의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부 정성숙 과장 (02-2203-3500, 내선103)



EPL 속명여대 9기 과정을 마치며

매번 같은 과정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EPL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듯하다.

지난 유월의 어느 날 산천이 파릇파릇 그 색을 자랑하는 날에 준비모임을 갖고 시작된 EPL과 속명여대 교수님들과의 아홉 번째 만남. 숙대 9기는 그 이전 그 어떤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열의보다도 더 강렬하고 진지하며, 깊이 있고 부드러운 힘을 보여준 시간들이었다.

진행도중 학기가 시작되어 교육 시간이 오후 3시에서 아침 7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맛있게 준비된 샌드위치로 짧은 아침을 가지면서 나누었던 소중한 이야기들. 주간 목표를 만들어 가며 하나하나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꼭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던 이야기들. 주말에 워크숍을 통해 사명선언서를 만들면서 몇 번이고 고치고 가다듬고, 그래도 아닌 듯하여 다시 보고 나서야 만들어진 사명서를 보면서 뿌듯해 하던 모습. 이런 저런 기억들이 소중한 수료식을 마치고 난 지금 내게 남아 있는 멋진 추억이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면 얻었던 만큼만 얻는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도 빠지는 일 없이, 그리고 또 과정 기간 중에 벌어진 전국교수추진대회에 숙대를 이끌고 교체멤버가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수승이라는 크나큰 성취를 만들어 퍼스널 리더십의 모범을 보인 C 교수님, 반장이라는 타이틀이 교수보다 낫다고 이제부터는 반장교수님으로 부르기로 한 L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미리 연락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직접 챙기시며 진정으로 과정 속에서 이것이 EPL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리더의 표본임을 알려주었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배려와 섬김의 본을 보이신 S 교수님, 타고난 음악성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신 자발적 동기부여의 진정한 리더 J 교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EPL을 만났기에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었다는 H 교수님, 경영학자로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알려주시고 특히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K 교수님, 다양한 분야의 박식함으로 우리의 토론을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며 재미있는 영화이야기를 들려주신 H 교수님, 스포츠를 통한 풍성한 리더십 사례들로 감동을 만들어 주신 J 교수님, 바쁜 와중에서도

주차장에서까지 과제를 완수하시며 글로 쓴 계획의 위력을 보여주신 K 교수님, 늦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열망을 보여 주신 J 교수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참여 교수님들의 열정이 숙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을 의심치 않는다.

올 들어 첫눈이 서울 하늘에 소담스레 내리

던 그 밤에 사명선언서를 낭독하며 가진 수료식은 숙대 9기의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을 하늘조차도 축하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가진 아름다운 수료식. 그 동안의 소감들을 가슴 벅차하며 내어놓으며 박수로 화답하고 맘으로 공감하며 이렇게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 드리며, 언제나 세심한 배려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LMI의 영감에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운다는 말은 틀리지 않는다.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교수님들의 열의와 열정이 도리어 내게 도전과 새로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더욱 더 효과적 열정으로 살게 도와주신 9기 교수님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보내는 지금, 그 밤에 나리던 눈이 생각한다. **LMI**

효과적 열정

한국엘엠아이 마스터코치 안효열

한국엘엠아이 소식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속명여대 9, 10기 과정 수료
지난 11월 19일과 26일 안효열 한국엘엠아이 마스터코치의 진행으로 '세계 최고의 리더십 대학'을 지향하는 속명여대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EPL 과정 9, 10기가 수료식을 마쳤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자유의 질 관리 능력, 教養의 중요성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자유의 질을 높이는 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직면한 21세기 최대의 과제이다. 1990년대 초 소련연방의 해체로 동구권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자유의 억압은 해소되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질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보스니아, 세르비아, 체첸 등에서 나타난 것 같은 처참한 비극이 발생했다. 공산권의 해체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층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의 질 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에 오히려 긴장과 갈등,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더 많고 커진 나라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자유에 대한 억압의 해소는 축복이지만, 자유의 질 관리 능력을 높이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재앙을 끌어들이는 저주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자유의 질 관리는 바로 자유를 값어치 있게 누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자유에 대한 질 관리의 핵심은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지혜의 습득에 있다. 나의 자유만 주장하고, 남의 자유는 안중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약육강식의 동물사회에 지나지 않고, 내 자유는 없고 남의 자유만 인정하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다. 나와 남의 자유를 동시에 최대한으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실현하는 것이 자유의 질을 가름하는 기준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의 질은 어떻게 확보되고 개선되어 갈 수 있는 것일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자유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과 교양의 심화와 확산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1959년 싱가포르 자치령이 가능해지자 초대 총리에 임명된 리완유(李光耀) 총리는 새로운 싱가포르 혁신이라는 야망에 불탔다. 그는 싱가포르를 깨끗하고 친절하며 예의바르며 부정부패가 없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분쟁 상태에 있었던 말레이시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에 연동시켜서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식민지 생활로부터 벗어난 싱

가포르인들은 이른바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 자율통제가 어려웠다. 리완유 총리의 기대처럼 주민들은 십사리 청결하고 친절하고 예절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자유는 확보됐으며, 자유의 질 관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그 유명한 가부장적 도덕통치 즉, '법을 통한 자유의 질 관리'에 나선다. 법을 통한 도덕행동의 규제에 나선 것이다. 예컨대 그는 껌을 씹고 함부로 뱉어 길거리가 불결해지자 껌의 수입을 금지시킨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청결해졌다. 이렇게 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유의 질 관리를 한 덕분에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깨끗하고 친절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는데 성공했다.

이런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는 많은 나라에 귀감이 될 법하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사례에 찬탄을 하면서도 정작 이를 그대로 본받으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을 통한 자유의 질 관리의 부작용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씹고 버린 껌이 도로를 불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껌 씹을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 또한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껌은 마음대로 씹되, 길거리를 훼손시키지 않게 껌을 씹고 처리할 줄 아는 교양과 시민의식의 계발이 그래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대비되는 나라가 프랑스를 위시한 서구의 선진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길거리에서 휴지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할 정도로 느껴질 만큼 비간섭적이다. 담배꽂초를 버리는 것에도 무척 관대하다. 그럼에도 파리 시내에는 결코 불결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도덕을 법으로가 아니라, 예의규범과 교양의 증진으로 자유에 대한 질 관리의 능력을 높이며 애쓰는

법에 의한, 법을 통한 자유의 규제만이 청결하고 예절바르며 친절하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구의 대다수 선진국을 보더라도, 싱가포르처럼 엄격하게 법의 규제를 펼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시민 각자의 교양과 문화의식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유의 질 관리는 궁극적으로 볼 때 시민 각자의 교양과 도덕의식에 맡겨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KMO)



43세 하버드대학원 입학, 59세 하버드박사학위 취득
가발공장직공에서 하버드박사가 되기까지

서진규의 희망

하버드의 늦 이 공부벌레 |
서진규의 유학 생존기

서진규처럼
공부하면
하버드 박사도
문제없다!

희망메신저 서진규의 희망시리즈 제3탄!

세계적인 성공전략 컨설턴트

필드 적극 추천!

꿈과 행복에 도달할 방법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랜덤하우스

문의 02-3466-8848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오크우드호텔 별관 B2



[서진규의 희망] 출판기념회

일시 : 2008년 1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 롯데호텔 소공동 사파이어볼룸

문의 : (사)인간개발연구원 정소영 차장 (02-2203-3500 내선107)

* 본 책 출간의 10%는 희망을 위한 나눔사업에 기증되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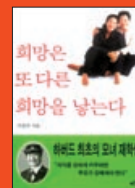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필독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진규의 희망시리즈 제1탄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 신국판 19,500원 | 316쪽 | 랜덤하우스 |



서진규의 희망시리즈 제2탄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

| 신국판 18,700원 | 362쪽 | 푸른숲 |

가족을 위한 까다로운 안목으로-

유당 0%, 식물성 영양밀크 베지밀



ZERO

대한민국 성인 75%가 겪고 있는 유당소화장애
“아침식사는 乳糖ZERO 베지밀로
속을 편안하게 하세요”

- 두유에는 유당과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 ESL시스템으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0~10°C에서 유통기한 동안 안전하고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냉장제품입니다.
- ESL이란 Extended Shelf Life의 약자로 식품공학에서 무균과 공정 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본제품은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주문처

- 서울 · 경기 동부영입소 (02)468-3233
- 서울 · 경기 북부영입소 (031)861-3782
- 서울 · 경기 서부영입소 (032)514-2315
- 서울 · 경기 남부영입소 (031)261-5535
- 서울 · 경기 강남영입소 (031)263-8561
- 강원영입소 (033)764-8801
- 충청영입소 (042)623-8601
- 전북영입소 (063)214-5731
- 전남영입소 (062)941-5001
- 경북영입소 (053)559-3441
- 경남영입소 (055)231-8581
- 부산영입소 (051)204-8561

문의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